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aternal Inner Strength on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최미경¹

Mi-Kyung Choi¹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by exploring pathways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aternal inner strength, and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Methods: A total of 329 mothers with 3-year-old children responded to online survey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questions about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aternal inner strength, and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The data was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maternal inner strength perfect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More concretely, a direct effect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was not found. It was also found that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effects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indirectly.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maternal inner strength was the greatest among all associations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aternal inner strength, and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have insights for research and practice, which emphasize the important considerations that enhancing maternal inner strength and the power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maternal inner strength should be emphasized in order to improve maternal parenting competence.

* 본 논문은 2020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¹ 제1저자(교신저자)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부교수

(e-mail : dmkchoi@duksung.ac.kr)

■ key words Parenting Involvement, Inner Strength, Parenting Competence

I. 서론

최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육아 관련 도서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 블로그, 핸드폰 앱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육아 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 관련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의 성장에 영향력이 크지만, 부모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며 부모로서의 자아존중감은 과거보다 약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문무경, 2017). 국외의 어머니와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교육, 생활관리 등 다양한 일을 하지만, 과열된 교육 열풍 속에서 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며(강창동, 2008) 자신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신념인 양육효능감은(parenting competence)(Teti & Gelfand, 1991) 국외의 어머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정다빛나, 2017). 양육효능감은 어머니 자신의 양육스트레스나 행복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조선희, 2015) 자녀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박운정, 최미경, 2019), 이와 관련된 변인을 지속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어머니가 양육효능감이 낮은 경우, 불안감이나 우울을 경험하기 쉬웠으며 자녀에게 억압적인 양육태도를 취해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하미정, 장영애, 2010; Coleman & Karraker, 1997). 반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행복감이 높았으며(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육아 자신감이 높고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라리, 김정아, 2005; 조선희, 2015; Coleman & Karraker, 1997, 2003). 또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했으며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덜 보였고(정은희, 권연희, 2015),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향상시켰다(Anicama & Catherine, 2018). 양육효능감이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건강 및 자녀의 정서,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나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국외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된 만큼, 어머니 양육효능감 향상을 위해 관련 변인들을 지속해서 조사한 학문적 노력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로 주로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그리고 자녀의 발달 관련 변인이 연구되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가정 내 변인들 가운데, 아버지 양육참여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버지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목되는 변인이다.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와 놀아주거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으며 아버지가 가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는 등 양육참여에 소극적일 때 어머니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하락했다(서미정, 2017; 최미경, 2018). 또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양육에 참여하는 남편을 둔 어머니의 경우 자신의 육아능력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거나 행복감이 상승했다(서미정, 2017).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해 불만족감을 가질 때 행복감이 낮아졌고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으며(서성중, 2018) 양육효능감은 낮아졌다(최미경, 2018). 이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행복감을 증진하며 어머니의 육아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양육태도 등에 비해 아버지 관련 변인 특히, 아버지가 가정에서 실제로 육아에 참여하는지를 뜻하는 양육참여의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자, 가족, 친구, 사회,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등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자세를 유지하고, 굳건하며, 어려움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면의 힘(inner strength)(Lundman et al., 2010)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내면의 힘은 원래 질병 중에도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개인의 내적인 힘과 관련하여 연구되었으며(Rose, 1990), 이후 노화 과정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내적 사고나 힘에 주목하면서 개념적, 이론적 기초가 형성되었다(Alpers, Helseth, & Bergbom, 2012; Dingley & Roux, 2014). 내면의 힘은 삶의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내적인 변화 과정에서 주목되는 변인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삶의 큰 변화 과정을 경험하는 어머니의 양육과도 관련되어 연구되었다(김현수, 2019). 즉, 내면의 힘은 한 개인이 인생의 도전적인 사건을 겪을 때 긍정적인 힘을 내도록 지지해주는 내적인 발달적 역량(Roux & Dingley, 2011)일 뿐 아니라, 개인이 역경을 극복하여 웰빙을 증진하도록 하는 내적인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Lundman et al., 2010).

내면의 힘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발달상 위협에 직면해서도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손상되는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요인인 ‘탄력성’(resilience),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통일감 있게 수용하는 통합성(sense of coherence),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신념체계를 지니며 일관성 있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는 삶의 목적(purpose in life), 사회적으로 정의되고 외적으로 평가받는 자신에 덜 의존하며, 유물론적인 사고와 세상에 대한 합리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다 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관점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이(Lundman et al., 2010) 알려졌다. 내면의 힘의 구체적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이 지닌 삶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함(firmness), 경험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적응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인 창의성(creativity),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인 유대감(connectedness), 삶이 힘들 때도 계속 노력하고 도전하는 의지인 적응성(flexibility)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Lundman et al., 2010). 국내에서는 내면의 힘이 질병을 겪는 여성 환자 연구를 통해 알려지다가(이영은, 2017; 최수현, 2016), 최근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이 보고되면서(김현수, 2019) 양육관련 변인으로 주목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내면의 힘에 관한 이론 및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내면의 힘을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역경 속에서도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정감을 지니며 대처해 나가는 내적 역량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나 신념은 한 개인이 지닌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적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Lundman et al., 2010),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지닌 내면의 힘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내면의 힘과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지만 유사한 개념인 자아탄력성, 회복탄력성, 정서지능 등의 개념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냈으며(고혜진, 2005), 회복탄력성이 높을 때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했다(이지현, 2012). 또한, 회복탄력성과 유사한 개념을 포함하는 정서지능(Mayer, Caruso, & Salovey, 2000)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박진영, 부성숙, 2014). 이 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어머니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으며(고혜진, 2005).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나타냈다(노현호, 2016; Cecilia, Tiamo, Rosenblum, Katherine, Hamilton, & Muzik, 2018). 즉,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한 후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 약할 때 자녀양육을 어려워하거나 자신의 양육능력을 낮게 평가하며, 회복탄력성이 약한 어머니는 자녀양육 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이 양육을 잘하지 못한다고 여겼다(노현호, 2016). 이는 내면의 힘이 높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양육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며, 양육능력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안,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특성과 양육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에 비해 어머니가 지닌 인지적 특성의 하나이자 사고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양육효능감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지닌 내면의 힘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개념인 회복탄력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드(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하면서 정신과 자아와 같은 인간의 중요한 본질을 형성하게 된다(Mead, 2010). 특히 미드(Mead)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의미 있는 상징이나 언어를 통해 소통되는 과정에서 정신이 생기며 인간이 자신을 돌이켜보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에 기초해서 볼 때, 가정이라는 기본적 사회환경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해나가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가사 및 자녀의 생활을 지도해주는 등 육아에 참여할 때 어머니는 이러한 태도의 의미를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정신적 안정감을 형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양육을 지원할 경우 이는 정서적 지지원이 되어, 안정감을 유지 시켜 줄 만큼 중요한 자원이었으며(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Lakey, 2010), 아버지가 가정에서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강화하고(김복선, 2011; 표윤경, 2012) 부정적인 심리특성을 감소시켜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최항준, 조수경, 김미정, 2015). 특히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주변의 도움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특성을 향상시켰다(정추영, 2004; 이금진, 2008; 용홍출, 황경열, 고일영, 김철, 2009; 박희진, 문혁준, 2013).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여가나 가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김상림, 박창현,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심리특성이 긍정적이었으며(박은하, 2014),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김상림, 박창현, 2016).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여기며 소홀히 할 때 어머니는 남편의 관심과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여겨 양육을 더 힘들게 여기며(Belsky, Crnic, & Wookworth, 1995) 자기효능감이 낮았다(김상림, 박창현, 2016). 즉,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 양육 중에 생길 수 있는 부담과 긴장을 줄여주어(이은영, 이영애, 2018)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심리 내적인 자원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훈육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을 지도해주

고 여가시간을 보내며 가사를 돕는 등의 양육참여를 할 때, 어머니가 양육으로 어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안정감 있게 자녀를 양육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이겨내는 내적인 힘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로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의 관련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은 각각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내면의 힘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 및 어머니 양육효능감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내면의 힘의 역할을 예상하게 한다. 이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버지 양육참여나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내면의 힘과 유사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특성의 역할을 조사한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한다. 즉,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았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았으며(김상림, 박창현, 2016)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어머니는 육아 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았다(박수연, 2019). 또한,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며 육아에 관심을 보이고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자기통제력이 향상되었으며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다(김상림, 박창현, 2016). 다시 말해,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을 지도하거나 가사활동을 할 때 어머니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높아지고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내면의 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어머니 내면의 힘은 어머니가 육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 내면의 힘을 높이고, 어머니가 지닌 높은 내면의 힘은 궁극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자신감을 지니도록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 그리고 양육효능감의 하위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심리 내적 특성으로서 내면의 힘이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매개적 역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내면의 힘을 통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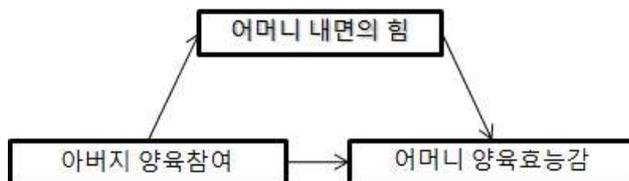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를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에 등원하는 만 3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329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을 유아의 어머니로 선정한 것은, 이 시기의 자녀를 교육하거나 훈육할 때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의 영향력이 크며, 이 시기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에 영향을 끼치고 이에 따라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도현심 등, 201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연령은 만 3세로, 성별은 남아가 166명(50.5%), 여아가 163명(49.5%)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36-40세가 178명(54.1%)로 가장 많았으며 41-45세가 70명(21.4%), 30-35세가 55명(16.7%)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169명(51.2%)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30-35세가 98명(29.6%), 41-45세가 45명(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73명(52.6%), 전문대 졸업이 69명(21.0%), 대학원 이상이 48명(1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83명(55.6%), 전문대 졸업이 86명(26.1%), 대학원 이상이 34명(10.3%)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 112명(34%)로 그 수가 가장 많았고 일반 사무직이 77명(23.4%)로 그다음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이 46(14%)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일반 사무직이 115명(35%)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88명(26.7%)로 그다음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회사원 등의 관리직이 76명(23.1%)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167명(50.8%), 400-500만원 미만인 67명(20.4%), 300-400만원 미만인 60명(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 = 329)

변인	빈도	%	빈도	%
아동의 성별				
남아	166	(50.5)		
여아	163	(49.5)		
아버지 연령			어머니연령	
25~29세	2	(0.6)	25~29세	13 (4.0)

표 1. 계속

변인	빈도	%	빈도	%	
30~35세	55	(16.7)	30~35세	98	(29.6)
36~40세	178	(54.1)	36~40세	169	(51.2)
41~45세	70	(21.4)	41~45세	45	(13.6)
45~49세	20	(6.0)	45~49세	4	(1.6)
50세 이상	4	(1.2)	50세 이상		

아버지 교육정도			어머니 교육정도		
고등학교 중퇴, 졸업	39	(11.9)	고등학교 중퇴, 졸업	26	(7.9)
전문대 졸업(2년), 대학교중퇴	69	(21.0)	전문대 졸업(2년), 대학교중퇴	86	(26.1)
대학교 졸업	173	(52.6)	대학교 졸업	183	(55.6)
대학원 이상	48	(14.6)	대학원 이상	34	(10.3)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무직, 가정주부	3	(0.9)	무직, 가정주부	88	(26.7)
생산직 감독, 서비스직	36	(10.9)	생산직 감독, 서비스직	2	(0.6)
자영업, 일반판매직	33	(10.0)	자영업, 일반판매직	6	(1.8)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77	(23.4)	일반사무직, 보안업무	115	(35.0)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112	(34.0)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76	(23.1)
전문직	46	(14.0)	전문직	23	(7.0)
기업주, 정부고위관리, 기업체간부	2	(0.6)	기업주, 정부고위관리, 기업체간부	2	(0.6)
기타	20	(6.1)	기타	17	(5.2)

가정의 월평균총수입		
200만원 미만	3	(0.9)
200~300만원 미만	32	(9.7)
300~400만원 미만	60	(18.2)
400~500만원 미만	67	(20.4)
500만원 이상	167	(50.8)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도구는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내면의 힘, 그리고 어머니 양육효능감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들이 직접 평가했다.

1) 아버지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는 Bigner(1977) 및 Baruch와 Barnett(1981), Lamb(1975)의 연구에 기초해 최경순(1992)이 제작한 도구를 유아의 아버지용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윤서희(2014)의 아버지 양육참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는 여가활동, 생활지도, 가사활동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5문항이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여가활동은 “자녀와 함께 외출하거나 놀아주는 것을 좋아한다.”등이며 생활지도는 “아이가 여러 사람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준다.”등이고, 가사활동은 “설거지를 돕는다.”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윤서희(2014)가 실시한 연구에서 하위요인 각각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여가활동 .90, 생활지도 .88, 가사활동 .82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93, 생활지도 .92, 그리고 가사활동 .84로 나타났다.

2) 내면의 힘

본 척도는 Lundman 등(2010)이 개발한 Inner Strength Scale(ISS)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현수(201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Inner Strength Scale(ISS) 척도는 메타이론 분석을 통해 내면의 힘 차원으로 견고함(firmness) 및 창의성(creativity), 유대감(connectedness)과 적응성(flexibility)의 개념을 확인하였으며, 이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견고함이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이를 초월하여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삶 속에서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원칙을 뜻한다. 창의성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나 경험으로 여기는 개방성을 의미하며, 유대감은 타인을 사귀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인내심이 있는 의사소통능력으로 회복탄력성의 한 측면으로 여겨진다. 적응성은 삶의 힘든 상황에서도 도전할 의지를 지니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비극도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뜻한다.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견고함은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을 알고 있다.” 등이며 창의성은 “나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유대감은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성은 “나는 세상이 항상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의 Likert식 6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 내면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수(2019)의 연구에서 하위요인 각각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견고함 .77, 창의성 .71, 유대감 .72, 적응성 .75였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뢰도 분석 결과 견고함 .80, 창의성 .86, 유대감 .84, 적응성 .76으로 나타났다.

3) 양육효능감

본 척도는 Floyd, Gilliom 그리고 Costigan(1998)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척도를 안지영(2002)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parenting

confidence scale)과 어려움(under control scale)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15문항이다.

각 문항의 예는, “다시 아이를 키우더라도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키울 것이다.”,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에서 부모 역할의 어려움을 묻는 문항들은 역코딩하였다. 즉, 양육효능감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지영(2002)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는 2020년 6월에 온라인 리서치 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 설명서와 조사도구인 질문지를 온라인 리서치 업체에 보냈으며, 리서치 업체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연구대상에 적합한지 판별한 후 최종 연구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어머니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설문에 대해 동의한 후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IBM Co., Armonk, NY)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했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했다. 둘째, 각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조사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했으며,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평균 수입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T 검정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넷째, 전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다. 그 외에,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으로 분석했다(Anderson & Gerbing, 1988). 먼저, 1단계에서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완전구조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χ^2 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제시하였다. χ^2 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다(홍세희, 2005),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적합도 가운데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Kline, 2015). RMSEA는 보통 .05이하일 경우 그 모델은 적합도가 좋다고 해석하고 .08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며, TLI, CFI와 NFI는 적합도 지수가 .90이상 일 때 그 모델의 적합성이 좋다고 판단한다(홍세희, 2005). 끝으로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내면의 힘을 통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했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초분석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Ponnet et al., 2013),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조사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머니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과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연령 및 취업여부,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평균 소득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인들의 분포의 특성을 반영하는 왜도의 범위는 -.05에서 -.22, 첨도는 -.07에서 .41로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8보다 작아야 한다는(Kline, 2015) 정규성의 전제조건을 만족하였다. 그 외에 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모든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아버지 양육참여의 하위변인인 생활지도, 가사활동과 여가활동, 어머니 내면의 힘의 하위변인인 견고함, 창의성, 유대감, 적응성 그리고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선행변인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조사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 간의 상관관계는 .14-.29($p < .01$)이었으며, 분산팽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367-3.247)와 0.1 이상(0.308-0.731)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았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29)

변인	1	2	3	4	5	6	7	8
아버지 양육참여	-							
1. 생활지도	-							
2. 가사활동	.48***	-						
3. 여가활동	.71***	.55***	-					
어머니 내면의 힘								
4. 견고함	.29***	.16**	.27***	-				
5. 창의성	.27***	.18***	.25***	.47***	-			
6. 유대감	.28***	.22***	.24***	.27***	.41***	-		
7. 적응성	.23***	.14*	.19***	.45***	.43***	.42***	-	
어머니 양육효능감								
8. 양육효능감	.22***	.18***	.17***	.24***	.17**	.23***	.29***	-
<i>M (SD)</i>	3.48(.70)	3.36(.99)	3.63(.76)	4.73(.64)	4.34(.88)	4.13(.78)	4.14(.71)	2.34(.34)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할 때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β)의 절대값이 일반적으로 .50 이상이면 유의하다고 간주하는데(우종필, 2012),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표 3, 표4 및 그림 2와 같이 .57에서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42.15(df = 24)$, $\chi^2/df = 1.76$, CFI = .98, TLI = .97, NFI = .96, RMSEA = .04로 나타나, $\chi^2/df < 3$ (Kline, 2015), CFI > .90, NFI > .90, TLI > .90(Hu & Bentler, 1995), RMSEA < .05(Browne & Cudeck, 1993)라는 기준을 충족시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N = 329)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t
아버지 양육참여	생활지도	1.07	.93***	.09	11.12
	가사활동	1	.87***	-	-
	여가활동	1.23	.58***	.11	10.96
어머니 내면의 힘	견고함	.87	.65***	.09	8.94
	창의성	1.24	.67***	.13	9.15
	유대감	.92	.57***	.11	8.11
어머니 양육효능감	적응성	1	.68***	-	-
	효능감1	.61	.67***	.11	5.48
	효능감2	1	.96***	-	-

*** $p < .001$.

표 4.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N = 329)

변인	χ^2	RMSEA	CFI	TLI	NFI
지수값	42.15	.04	.98	.97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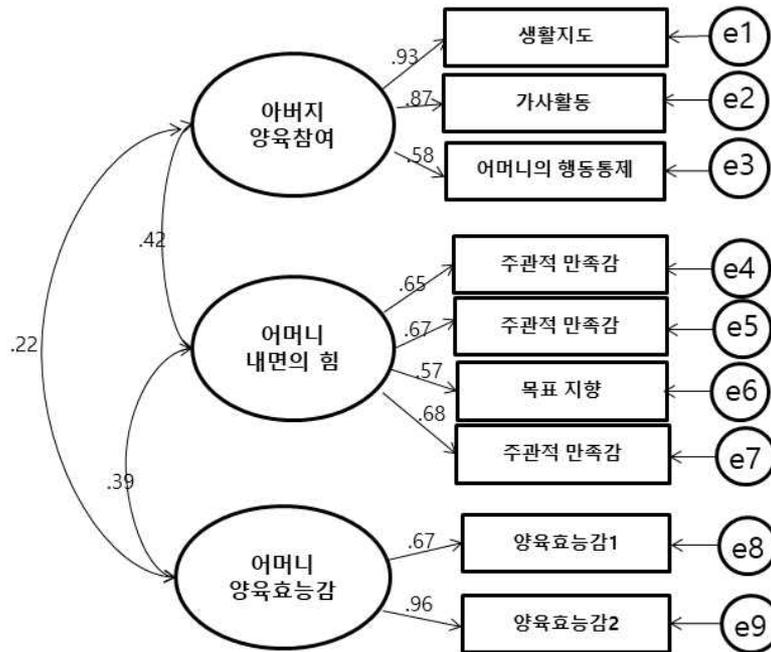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 = 43.16(df = 25)$, $\chi^2/df = 1.72$, CFI = .98, TLI = .97, NFI = .96, RMSEA = .04로 산출됨으로써, 본 연구의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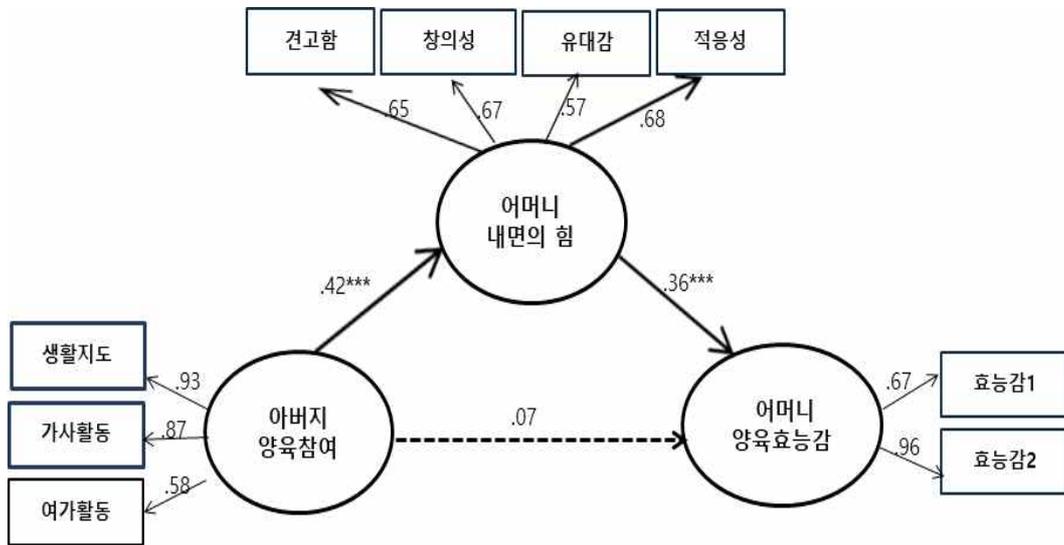
표 5와 같이 각 변인 간의 경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beta = .07, p > .05$).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내면의 힘을 통해 어머니 양육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내면의 힘($\beta = .42, p < .001$)에, 어머니 내면의 힘은 어머니 양육효능감($\beta = .36,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 내면의 힘이 컸으며, 이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향상시켰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내면의 힘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총효과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2,000개의 표본을 가상적으로 무선할당하고 95% 신뢰구간에서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때,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미하게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내면의 힘을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효능감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15, 신뢰구간은 (.08~.25)로 나타나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내면의 힘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효능감 간의 관

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표 5.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 (N = 329)

잠재변인 간의 경로	B	β	S.E	t	p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양육 효능감	.03	.07	.03	.99	-
어머니 내면의 힘 → 양육효능감	.18	.36	.05	3.68	***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내면의 힘	.35	.42	.06	5.49	***

***p < .001.



주) 측정오차는 생략함.

***p < .001.

그림 3.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표 6.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 (N = 329)

변수 간 경로	표준화된 경로계수			Bootstrapping (95% 신뢰구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양육효능감	.07	.15	.22	.15***
어머니 내면의 힘 → 양육효능감	.36***	-	.36***	
아버지 양육참여 → 어머니 내면의 힘	.42***	-	.42***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교육과 훈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아기시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며, 이러한 태도나 신념은 자녀를 양육하며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기 부모의 양육참여, 양육태도 그리고 양육효능감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육아 휴직제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어머니 내면의 힘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함으로써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및 어머니 내면의 힘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첫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5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배우자의 지원을 포함한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는 연구(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특성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들(김상림, 박창현, 2016; 김현수, 2019; Jackson & Huang, 2000; Jackson & Schemes, 2005)과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지도하고 여가 및 가사에 참여하는지와 같은 양육참여의 영향력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대처해 나가려 하는지를 뜻하는 내면의 힘과 같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영향이 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자녀양육에 협력할수록(이정신, 최영희, 2010)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며 여가나 가사활동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최미경, 2018)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세 변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석하는 데에 무리가 있지만, 우리나라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의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해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비해 약 9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가사와 육아에 할애하고 있으며(조성호, 2015), 아버지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어 이에 동참하는 아버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부모 중 아버지는 21.2%에 그치고 있다(뉴스핌, 2021). 다시 말해, 이 시기 유아에게는 발달 특성상 기본생활 및 또래관계 형성과 사회 규칙 등 지도와 훈육이 요구되는 시기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양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인 양육효능감은 아버지 양육참여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어머니가 지닌 개인 내적인 경험과 사고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내적 자원인 내면의 힘이 어머니가 양육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에 아버지 양육 참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지닌 내적 사고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어머니 대상 교육이나 상담 시 자녀양육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상황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기’ 및 ‘생각 바꾸기’와 같은 인지 개선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 어머

니는 유아교육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되므로, 자녀 양육과 가족 돌보기 등 가정 내에서 많은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긍정적 사고하기’, ‘상황을 다각도에서 해석해보기’와 같이 이해하고 사고하는 힘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유아 교육기관 부모교육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세 변인을 직접 조사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들을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 내면의 힘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 내면의 힘은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완전매개하여,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여가나 가사활동에 참여할 때, 어머니가 삶의 다양한 과정과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도 이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마음의 힘이 증진되며, 이는 다시 양육하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을 향상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지원을 받는 어머니는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책임을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양육부담감을 낮출 수 있게 하므로(최윤희, 문혁준, 2016)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녕감을 유지하게 하며(Cohen, Underwood, & Gottlieb, 2000; Lakey, 2010), 이는 결과적으로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향상했다는 연구(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돌봐주는 등의 양육참여를 할 때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며(김가운, 신혜영, 2013),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고 놀이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할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심리특성을 강화하고(김복선, 2011; 표윤경, 2012),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주변의 도움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긍정적 심리특성을 향상시키며(정추영, 2004; 이금진, 2008; 용홍출 등, 2009; 박희진, 문혁준, 2013), 이러한 어머니는 자녀 양육을 효율적으로 하며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김상림, 박창현, 2016)와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이루어질 때, 어머니가 살아가며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높아짐으로써 어머니가 양육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버지가 유아기 자녀의 생활을 지도하고 여가나 가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증가시키고(김산하, 2015), 어머니 내면의 힘을 증진시켜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하고, 나아가 이러한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육아를 잘할 수 있다는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내면의 힘, 그리고 어머니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종합해보면,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내면의 힘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의 기본생활지도나 교육 이외에도 외부활동 및 가사활동 등 부모가 참여해야 할 다양한 일들이 있으므로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의 생활을 지도해주고 여가나 가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즉, 아버지가 가정과 자녀를 위해 협력적으로 돌봄을 실천할 때 가족 구성원의 역할 구분이 효과적이며(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아버지

양육참여는 어머니에게는 다른 사회적 지원과 다르게 특별한 관심으로 여겨지고(Belsky et al., 1995) 행복감을 향상시켜 어머니가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힘든 상황에서 목표를 유지하며 유연한 사고와 대처해 나가는 내면의 힘을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모교육 및 아버지 참여프로그램에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의 비상사태로 여겨질 만큼 출산율의 지속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서울일보, 2019) 현시점에서 출산 장려문화는 자녀 출산 가정에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직장 내 탄력근무제나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을 기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내면의 힘의 영향력은 어머니의 개인적 경험과 사고를 통해 축적한 내적 사고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어머니 내면의 힘과 같은 마음근육(bounce-back muscles)은 신체 근육처럼 단련될 수 있는 것으로(Nichols, 2010) 어머니가 된 이후에도 개인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학습될 수 있는 특성이다. 따라서, 어머니 내면의 힘의 증진을 위한 유아교육기관이나 지역 복지센터 등에서 어머니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상담적 접근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사고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자기성찰이나 인지 프로그램의 제공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적합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온라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수집된 329명의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였다. 온라인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상 온라인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어머니들이 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다소 무리가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취업여부, 교육수준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Ponnet et al., 2013)에 근거하여 그 차이를 조사했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체 가계소득수준이 높았기 때문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가계 수입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선별한 후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연구 변인을 어머니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실시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평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해 어머니와 아버지 인식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본 연구결과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직접적인 변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어머니 원가족 경험 및 인터넷 및 온라인 활동참여 등의 변인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 유아기 자녀를 둔 대다수 어머니들은 온라인에서 육아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온라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 오프라인을 통한 육아정보와 지식 접근 및 SNS

활동 등의 참여에 따른 양육효능감 변화를 조사하는 실천적 연구도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머니 개인의 내면의 힘 및 어머니의 심리 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가정 내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경험을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할 힘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거나 자녀와 함께 여가나 가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고했다. 즉, 유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하는 것은 자녀교육, 가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어머니에게 여러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며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으로 사고하여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을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마음의 힘은 궁극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기도 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직접적으로 어머니 개인이 지닌 내면의 힘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양육효능감과 같이 개인이 지닌 인지적 사고는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내적인 힘과 큰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결과로 본 연구결과는 예비부모나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 및 상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수경, 정미라, 이방실, 김민정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프랑스 어머니의 양육참여, 양육효능감 및 양육불안에 대한 비교연구. **유아교육연구**, 34(6), 539-555. doi:10.18023/kjece.2014.34.6.023
- 강창동 (2008). 한국의 편집증적 교육열과 신분욕망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한국교육학연구**, 14(2), 5-32.
- 고혜진 (2005).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태도의 관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중재 효과 및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윤, 정미라, 박수경, 이방실 (2013). 만 2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7, 179-201.
- 김가운, 신혜영 (2013). 아버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의 상대적 영향력 탐색.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2), 191-213.
- 김복선 (2011).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산하 (2015).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행복감의 관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림, 박창현 (2016). 아버지 양육참여와 사회적 지지가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 영향: 어머니 심리특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3), 451-464. doi:10.7856/kjcls.2016.27.3.451
- 김현수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면의 힘과 성인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현호 (2016). 어머니의 성인애착, 회복탄력성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뉴스핌 (2021. 01). 초저출산의 비극: 항상 엄마 몫?...아직도 용기 필요한 아빠 육아 휴직.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105001050>에서 2021년 2월2일 인출
- 도현심, 이희선, 김상희, 최미경, 이사라, 김상원 (2011). **인간발달과 가족**. 경기도: 교문사.
- 문무경 (2017).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51, 6-16.
- 박수연 (2019).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우울과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정, 최미경 (2019).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5(5), 47-68. doi:10.14698/jkce.2019.15.05.047
- 박은하 (2014). 어머니가 인식한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우울지수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부성숙 (2014). 어머니의 정서지능이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1), 995-1007. doi:10.5392/jkca.2014.14.11.995
- 박희진, 문혁준 (201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3), 81-98.
- 서미정 (2017).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버지 및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간 종단적 관련성. **육아정책연구**, 11(3), 47-64.
- 서성중 (2018). 유아기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일보 (2019. 08).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다...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300>에서 2021년 1월29일 인출
- 안라리, 김정아 (200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또래 유능성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36(1), 329-350.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용홍출, 황경열, 고일영, 김철 (2009).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심리적 안녕감과 가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16(2), 115-134.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윤서희 (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절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진 (2008).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망과 지원정도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 우울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1), 43-61.
- 이영은(2017). 내면의 힘이 여성 폐암 환자의 삶에 질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이영애 (201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배우자 양육지원의 조절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 연구)**, 21(1), 125-151. doi:10.17641/kapt.21.1.7
- 이정신, 최영희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13(1), 19-32.
- 이지현 (2012). 만 5세 유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회복탄력성의 경향 및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빛나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한국과 미국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부부관계 인식과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비교연구.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김미정, 하은실 (2012).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1), 73-97.
- 정미라, 김민정, 이방실 (2015). 어머니 문지기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행동 간의 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55-373. doi:10.14698/jkce.2015.11.2.355
- 정은희, 권연희 (2015).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플로우의 매개효과. **생애학회지**, 5(1), 105-120. doi:10.30528/jolss.2015.5.1.007
- 정추영 (2004). 사회적 지지가 정신지체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화 (2015). 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태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호 (2015). 부부의 가사 및 육아분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여성경제연구**, 12(1), 163-187.
- 최경순 (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미경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9(5), 31-44. doi:10.5723/kjcs.2018.39.5.31
- 최수현 (2016). 유방암 생존자의 내면의 힘과 삶의 질: 내면의 힘 이론을 기반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희, 문혁준 (2016).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배우자 지지, 사회적 지지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0(6), 407-424.
- 최항준, 조수경, 김미정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 양육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심리특성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0(1), 383-402.
- 표윤경 (2012).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미정, 장영애 (2010). 부모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의 자기 효능감과 일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1), 33-51.
- 홍세희 (2005).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Anicama, C. (2018). I think I can: the relations among parenting self-efficacy, parenting context, parenting practices, and preschooler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mong low income immigrant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A.
- Alpers, L., Helseth, S., & Bergbom, I. (2012). Experiences of inner strength in critically ill patients—A hermeneutical approach. *Intensive and Critical Care Nursing*, 28(3), 150-158. doi:10.1016/j.iccn.2011.10.004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Baruch, G. K., & Barnett, R. (1986).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and children's sex 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7, 1211-1223.
- Belsky, J., Crnic, K., & Wookworth, S. (1995). Personality and parenting: Exploring the mediating role of transient mood and daily hassles. *Journal of Personality*, 63(4), 905-929. doi:10.1111/j.1467-6494.1995.tb00320.x
- Bigner, J. J. (1979). *Parent-child relation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Beverly Hills, CA: Sage.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Cohen, S., Underwood, L. G., & Gottlieb, B. H. (Eds.).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med:psych/9780195126709.003.0010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1), 47-85. doi:10.1006/drev.1997.0448
-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4(2), 126-148. doi:10.1002/imhj.10048
- Dingley, C., & Roux, G. (2014) The role of inner strength in quality of life and self-management in women survivors of cancer.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7(1), 32-41. doi:10.1002/nur.21579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doi.org/10.1111/j.1467-8624.1998.tb06224.x
- Hu, L. 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76-99). Thousand Oaks, CA: Sage.

doi:10.4135/ 9781452226576.n6

- Jackson, A. P., Huang, C. C. (2000). Parenting stress and behavior among single mothers of preschoolers: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26*(4), 29-42. doi:10.1080/01488370009511335
- Jackson, A. P., & Scheines, R. (2005). Single mothers' self efficacy, parenting in the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a two-wave study. *Social Work Research, 29*(1), 7-20. doi:10.1093/swr/29.1.7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doi:10.1080/10705511.2012.687667
- Lakey, B. (2010). *Social support: Basic research and new strategies for intervention.* New York: Guilford.
- Lamb, M. E. (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ors on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4), 245-257. doi:10.1159/000271493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doi:10.1037/0012-1649.34.6.1417
- Lundman, B., Aléx, L., Jonsén, E., Norberg, A., Nygren, B., Fischer, R. S. et al. (2010). Inner strength A theoretical analysis of salutogenic concep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7*(2), 251-260. doi:10.1016/j.ijnurstu.2009.05.020
- Martinez-Torteya, C., Katsonga-Phiri, T., Rosenblum, K. L., Hamilton, L., & Muzik, M. (2018). Postpartum depression and resilience predict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women with childhood maltreatment history.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21*(6), 777-784. doi:10.1007/s00737-018-0865-7
- Mayer, J. D., Caruso, D. R., & Salovey, P. (2000). Selecting a measure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 case for ability scales.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pp. 320-34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doi:10.1016/s0160-2896(01)00084-8
- Mead, G. H. (2010). Mind, self, and society, *정신 · 자아 · 사회* (나은영 옮김). 파주: 한길사(원판 2010).
- Nichols, L. (2009). *No matter what!: 9 steps to living the life you love.* New York: Wellness Central.
- Ponnet, K., Mortelmans, D., Wouters, E., Leeuwen, K. V., Bastaits, K., & Pasteels, I. (2013).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20*(2), 259-276. doi:10.1111/j.1475-6811.2012.01404.x
- Rose, J. F. (1990). Psychological health of women: A phenomenologic study of women's inner strengt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2*(2), 56-70. doi:10.1097/00012272-199001000-00009
- Roux, G., Dingley, C. (2011) Promoting inner strength. In J. Lester, & P. Schmitt (Eds.), *Cancer rehabilitation and survivorship. Transdisciplinary approaches to personalized care* (pp. 295-

- 304). Pittsburgh, PA: Oncology Nursing Society. doi:10.1097/00012272-199001000-00009
-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doi:10.2307/1131143

논 문 투 고 : 21.02.15
수정원고접수 : 21.03.18
최종게재결정 : 21.04.12